

신소설의 담론적 근대성*

— 유람 모티프를 중심으로 —

최 현 주(전 서울여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
| 2. 유람 사건의 서술 양상 | 2) 탈출과 도피로서의 유람 |
| 1) 나열하는 서술자: 서술의 피상성 | 4. 유람 모티프의 사회적 맥락 |
| 2) 요약하는 서술자: 서술의 가속성 | 1) 세계의 유람과 유람의 세계화 |
| 3. 유람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화 양상 | 2) 자아의 부정과 타자의 이상화 |
| 1) 당위와 願望으로서의 유람 | 5. 결론 |

1. 서론

‘新小說’은 그 명칭 자체가 표방하듯이, 전대와 다른 새로움을 기치로 삼는 문학양식이다. 그러므로 그 새로움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신소설에 담지된 근대성을 규명하는 논의의 본령에 해당한다. 물론 새로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신소설이 과도기의 산물로 평가받는 만큼,¹⁾ 신소설 속에 내포된 새로움은 구시대적 자질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될 수밖에 없다. 이때 새로이 신소설 텍스트 속에 편재하게 되었지만, 아직은 안정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한 요소들이야말로 근대성 해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4년도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되었음 (KRF-2004-037-A00133).

1) 임화, 『개설신문학사』, 『조선일보』, 1939. 12. 5.(본고에서는 임규찬 외 편 『신문학사』 한길사, 1993, 129면에서 인용함.)

것이다.²⁾

필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람 모티프³⁾에 주목하였다. 서구의 신문명을 향한 절대적 열망과 급진적 사회 변혁으로 특징지어지는 개화기의 산물인 신소설 속에는 작중 인물들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길 떠남, ‘유람’의 행위가 두드러지게 반복되기 때문이다. 가령 신소설 『해안』⁴⁾의 주인공 대성은 동경 유학 중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아내가 하인인 경천과 추행하였다는 거짓 편지를 받아, 사실의 규명은 뒤로 한 채 신세를 한탄하며 “세계 각국 구경이나 하고 죽으리라”고 결심한 후 즉시로 發程하여 ‘세계 유람객’을 자처한다. 『화중화』⁵⁾의 액자 속 피화자인 창랑자 역시 텍스트 서두에서 아무런 구체적 계기도 밝힌 바 없이, “남아가 세상에 나서 해외유람은 고사하고 우물 안 고기와 같이” 살아왔음을 탄식하고 그 다음 날로 행장을 꾸려 경부선 기차에 오른다. 전대의 소설들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이러한 행위는 신소설 텍스트를 고전소설들과 변별하게 하는 새로움의 가시적 지표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세계 유람을 작심하고 실천 가능하게 하는 삶의 조건들, 확장된 문건을 향한 절대적 지지와 염원 등은 고전소설이 토대로 삼는 사회·문화적 현실과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개의 유람 모티프들은 텍스트의 일차 서사 수준에 삽입되어 있으

2) 신소설과 데카르트식의 합리적 이성을 지닌 주체를 상정하는 서구적 의미의 근대성을 직결하기란 분명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비록 소박한 차원에서일지라도, 유람이 타자를 조우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인식의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람 모티프는 의미심장한 단서가 아닐 수 없다.

3) 모티프란 작품의 주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더 이상 해체할 수 없는 단일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텍스트들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Tomachevski, 『테마론』, 김치수 역, 『러시아형식주의』 Todorov 편, 이대 출판부, 1981, 209~210면 참조.

본고에서 규정하는 유람 모티프란, 텍스트 내에서 서술자 혹은 여타 작중인물에 의해 유람 주체의 행위가 ‘유람’이라고 직접 언표화되는 일련의 사건들로서, 출발-여행-귀환으로 구성된다. 한편 개화기 당대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유람을 유학에 포함하여 다루고자 한다. 후에 상론하겠지만, 당대의 외국 유람은 신문명의 학습과 수용을 위해 실천해야 할 당위로 간주되었다. 우미영의 논의에서도 유학을 “뒤늦은 開國과 기울어진 국운이 만들어낸 교육적 여행”이라고 한 바 있다. 우미영, 『視角場의 변화와 근대적 심상 공간』, 『어문연구』 12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342면

4) 최찬식, 『해안』, 『우리의 가정』 2~12, 1914. 1. 1~6. 9.(본고에서는 을유문화사본 『한국신소설전집』(이하 『전집』) 4권에서 인용하였으며 이후는 면수만 기재하기로 함.)

5) 작자미상, 『화중화』, 동국서국, 1912. 9. 10.(『전집』 6권에서 인용)

면서도 주 스토리라인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정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서사화된다.⁶⁾ 더욱이 유람을 떠나는 인물의 행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와 동기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유람 사건은 심지어 서사의 난맥상 내지 구성상의 흠결로 치부될 공산마저 큰 것이 사실이다. 결코 적지 않은 텍스트들 속에서 빈번하게 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예미학적 기준을 근거로 삼아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고 분석하는 기왕의 논의들에서 유람 모티프가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연구자가 주어진 텍스트적 현상을 다룸에 있어 미학적 가치에 대한 판단 이전에 그에 대한 가능한 한 객관적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그간의 신소설 연구에서 유람 모티프에 관한 논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데에는, 소수의 한정된 신소설 텍스트만을 반복적으로 대상화하는 기존의 연구 경향도 일조한 바 크다. 신소설이 발화·유통된 당대에 있어 과연 유람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행위였기에 그토록 빈도 높게 텍스트 속에 수용되었으며, 왜 꼭 우리가 텍스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낯선 방식으로 형상화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의문은 다수의 신소설 작품들을 다양하게 독해한 결과 자연스럽게 떠 오른 귀납적 결과로서, 이인직, 이해조, 최찬식 등 알려진 몇몇 작가의 작품 일부를 대상으로 삼아 독해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논제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왕의 신소설 연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거시적 전제들을 재확인하는 대신, 텍스트 자체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논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정밀한 독해와 섬세한 분석을 통해 유람 사건을 서술하는 구체적 양상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전체 텍스트 내에서 갖게 되는 서사적 의미와 위상을 규명하는 작업에 연구력을 집중하였다. 유람의 서사적 의미를 사회적으로 소통 가능케 하는 맥락을 재구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 역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6) 「화중화」의 경우는 소설의 서두이자 일차 서사를 서술하는 스토리 외적 수준의 서술 상황에서 유람이 행위화되고 있어서 그러한 돌출성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유람 사건의 서술 양상

1) 나열하는 서술자 : 서술의 피상성

작중 인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람 행위를 서술하는 방식의 특이성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빠르게 나열되는 여러 지명들이다. 이러한 양상은 여행하는 인물의 시선과 유람 지역 사이에 격질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즉 초점화의 주체가 유람이 이루어지는 공간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구체적·일상적 경험을 한 결과를 서술한다기보다, 물리적 혹은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공간을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초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서술의 내용이 여정에 따른 지명의 나열 혹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장면이나 사실들을 단순 제시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경부선 기차에 오른 「화중화」의 창랑자를 초점화자로 하여 서술된 다음의 대목을 보면 이런 식의 격질이 뚜렷하게 감지된다.

우선 경부선 완행차에 올라 기적(汽笛) 한 소리에 경성역(京城驛)을 출발하여 순식간에 용산(龍山)에 도달하니 이곳은 경의선의 발착역이라……(중략) 그로부터 노량진·영등포·시흥·안양·군포내(軍浦場)·부곡(富谷)을 모조리 거쳐 수원에서 교차(交車)하고……(중략) 귀포(龜浦)·부산진(釜山鎭) 각 정거장을 지나 마지막 초량(草梁)에 도달하여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 부산항에 이르니 이제는 남조선의 끝이라.(「화중화」, 412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진 창랑자의 유람은, 경부선 열차의 노선을 따라 역명을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대전·부산 등 특수한 요충지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이나 지역적 위상 등을 보충하는 식으로 서술된다. 여기에서 기차라는 신문명의利器로 인해 가능해진 국토 전반의 중단은, 간편하게도 유리창이라는 보호벽을 경계로 삼아 줄곧 객차 내부에 머물러 있는 인물의 시선을 따라 철저하게 시각적인 경험에 국한되어 이루어진다.⁷⁾ 기차가 정차하는 각 정

7) 이와 관련하여, 근대 초기 기행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차와 여행자의 체험이 초래한 시각

거장들은 동등하게 초점자의 시선에 노출되며 그 명칭 자체로밖에 변별되지 못한다.

일견 이러한 양상이 기차를 수단으로 하는 유람이기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관서지방을 향한 동일 인물의 도보여행을 기록한 연이은 서술에서도, 기차 노선의 역명이 전국 각지의 명승고적지와 황주(黃州)·안악(安岳)·문화(文化) 등 명승지 사이를 연결하는 몇몇 지명들로 대치되었을 뿐, 위에서 살핀 기차 유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람지에 대한 평면적 나열로 이루어진 이러한 서술 속에서 유람 중의 행위자가 갖게 되는 일상적 감상이나 특정한 장소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발견 혹은 주체적 재구성 등 생동감 있는 요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초점화 대상이 되는 지점들에 대한 균등한 시선의 배분과 그들 각각의 차이와 특수성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하는 이러한 서술의 방식은, 국내로 한정된 유람뿐만 아니라 세계라는 괄목상대할 공간으로 확장된 유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집을 떠난 후로 먼저 개성으로 내려가 명승고적(名勝古蹟)을 구경하는데, 고려 왕궁의 만월대(滿月臺) 기지와 선죽교상(善竹橋上)의 포은(圃隱) 천생 혈흔(血痕)이며, 채하동 수석과 박연(朴淵)의 폭포를 낚낚이 구경하고, 그 길로 평양으로 내려가 대동강 모란봉의 명미한 산수(山水)와 연광정(練光亭)·부벽루(浮碧樓)의 기려한 풍경이며, 기린궁(麒麟宮)·영명사(永明寺) 등의 금수강산을 유람하고……(중략) ㉡ 다시 태서(泰西)에 주유코자 상해로부터 비로소 운선(輪船)에 올라 태평양 너른 물결을 깨뜨리고 인도양(印度洋)을 횡단하여 영령 인도에 들어가 열대지(熱帶地)의 동식물이며 새로 발달되는 공업품을 낚낚이 시찰하고, 다시 지중해를 통하여 처음 구라파에 도착하니……(중략) 그 길로 파리·백림·피득보 등의 장걸한 시가를 열력(閱歷)하고, 서서(瑞西)의 세계명승지라 칭하는 빙하공원(氷河公園)의 기관이며, 기타(和蘭)·정말(丁抹)·서반아(西班牙)·이태리 등의 풍물을 곳곳이 구경하고……(『안의 성』, 8) 138~139면)

『안의 성』에서 남성 주인공 김상현은 부인 박정애의 행방을 찾기 위해 종적을 탐문하는 것과 병행하여 “세상구경”을 목적 삼아 길을 떠난다. ㉠은 개

구성 방식상의 변화를 근대적 주체의 내면 형성과 연계하여 검토한 논의를 참조할 만하다. 우미영, 앞의 논문, 327~350면.

8) 최찬식, 『안의 성』, 박문서관, 1914. 9. 30. (『전집』 4권에서 인용)

성으로부터 시작된 유람 중 국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은 중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도와 유럽, 아프리카와 호주로 이어지는 세계 여행을 서술한 부분 중 일부이다. 명승지의 명칭들이 세계 각국의 국명과 수도 등으로 교체된 것을 제외하면 서술의 방식상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느낄 수 없다. 그야말로 “周遊”하는 과정에서 경유하는 각국의 명칭이 피상적으로 나열되고 있을 뿐이다.

기차 여행에서는 쯤이라는 사물이 유람의 대상과 주체 간의 여과 혹은 분리를 가능케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보 혹은 윤선을 수단으로 하는 유람에서는 초점자의 시선을 가로막는 어떤 사물도 상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자인 인물과 대상 간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거리가 존재하며 극히 피상적인 초점화와 서술만이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본질적인 원인의 실마리는, 『목단화』⁹⁾의 여주인공 이정숙이 계모 서씨의 모해를 피해 달아나던 중 조력자인 최중락을 만나 수작하는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자신의 내력을 묻는 최중락의 질문에 이정숙은 “강산 유람으로 나섰다가 자연 여기까지 전진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최중락은 연소한 터에 유람을 다니는 사실에 대해 찬탄하며 강산 구경의 소상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 서술자는 이정숙이 “조선 십삼도 산천의 경계와 리수의 원근을 그린 듯이 말”하였으며, “이는 정숙이 참구경한 게 아니고, 지리학을 연구한 고로 서슴지 않고 말함이라”(이상 5면)고 진술한다. 이는 서술자가 실제 유람이 아니라 지리학의 힘을 빌어 간접 경험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지리에 대한 관념과 실천적 유람이 동일시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체험 불가능했을 전지구적 유람도 텍스트 내에서 충분한 개연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마치 지도를 펼쳐 놓고 거기에 표기된 지명을 따라 “그린 듯이” 서술되는 양상은 유람 모티프를 수용한 거개의 신소설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추월색』¹⁰⁾에서 영국인 스미트를 따라 영국 런던의 거리를 유람하는 김영창의 시선(37면)이나, 『옥호기연』¹¹⁾에서 주막동이 로마와 나폴리의

9) 김교재, 『목단화』, 광학서포, 1911. 5. 17.(『전집』7 권에서 인용)

10) 최찬식, 『추월색』, 회동서관, 1912. 3. 13.(『전집』4 권에서 인용)

11) 민준호, 『옥호기연』, 동양서원, 1912.(본고에서는 아세아문화사본 『新小説·翻譯小説』10

거리를 배회하는 장면에 대한 서술(25~37면), 「금강문」¹²⁾에서 남녀 주인공인 박경원과 이정진의 금강산 기행 과정을 묘사한 부분(230면, 239~240면) 등에서는 이와 같은 피상성을 탈피한 듯한 경험의 구체성과 대상에 대한 생동감 있는 묘사가 다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신소설 전체 중 극히 일부이자, 해당 텍스트 내의 서술 중에서도 한정된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¹³⁾ 기차 여행이라는 새로운 유람의 형식과 지도를 통한 간접적 지리 이해는 시선의 균등한 분배와 대상에 대한 피상적 이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실적 정황에 토대를 둔 신소설의 유람 모티프는 텍스트에 나타난 바대로 나열적인 서술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요약하는 서술자 : 서술의 가속성

신소설 텍스트 속에서 유람 사건이 서술되는 방식의 특이성 중 또 다른 하나는, 작중 인물이 유람하는 과정의 시간이 급격히 가속된다는 점이다. 즉 사건이 전개되는 스토리 시간에 비해 그것을 서술자가 발화하는 담화적 시간이 현저하게 짧다는 것이다. 이는 앞 절에서 인용한 대목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인데, 가령 앞 절에서 인용한 「안의 성」에서 김상현의 유람을 서술한 부분을 보면, 개성에서 중국에 이르는 아시아 유람에만 5~6개월이 걸렸고 유럽에서 아프리카와 호주에 이르는 서구 유람까지 3년이 걸린 것으로 언급된다. 그 동일한 3년의 시간 동안 상현의 모친과 아내인 박정애가 겪는 갈등과 곡절이 텍스트의 상당 분량을 차지하면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과 달리, 상현의 유람 내용은 지극히 요약적으로 서술될 뿐이다. 유람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가속성의 극단은 생략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금국화」¹⁴⁾는 계모 최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이해묵과 그의 처

권에서 인용하고 이후 면수만 기재하기로 함.)

12) 최찬식, 「금강문」, 동미서사, 1914. 8. 19. (『전집』4권에서 인용)

13) 「추월색」과 「금강문」의 경우 이는 최찬식이라는 특정 작가 개인의 역량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옥호기연」은 이탈리아 역사에 관한 당대 출판물에 의존한 바 크리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박해란의 시련을 중심 플롯으로 하고 있다. 효심 때문에 계모의 악행을 알고 도 목인하던 해묵은, 결국 죄상이 밝혀진 계모가 투옥되어 징역을 살게 되자 스스로 “도덕의 죄인”을 자처하며 유람에 오른다. 그런데 출발과 동시에 이해묵의 동선은 텍스트 문면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독자들이 그의 구체적 여정과 유람의 내용을 인지하게 되는 것은, 텍스트 말미에 제시된 해묵이 해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이다. “그간에 내 몸은 멀리 서장(西藏)·몽고지방(蒙古地方)으로 여행을 하였다”(496면)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약되는 해묵의 유람은 극단적인 가속의 한 예일 것이다.

유람의 구체적인 과정이 극단적으로 생략되는 것은 이처럼 국외를 여행한 경우, 특히 유학의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봉선화」¹⁵⁾의 후취 부인 구씨는 전설 소생인 여경현 내외를 도모하고자 남편 여승지를 사주하여 여경현을 유학 보내려 한다. 음모의 정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현은 처 박씨에게 가정의 경영을 맡기고 동경으로 떠난다. 그리고 “……하관에서 다시 기차를 타매 동경에 와 벌써 내렸더라. 정결하고 조용한 여관 한 곳에 주인을 정하고, 성성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151~152면)라는 서술자 발화를 끝으로 한동안 텍스트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의 행방은 텍스트 말미에서 “동기 방학을 당하여 부모의 얼굴을 뵈오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275면)라는 언급을 통해 다시 드러나지만, 이후에는 유람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무려 백여 면에 걸쳐 박씨의 수난 및 여씨 가족의 파란이 전개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경현의 유학 생활은 전혀 재현되지 않는 것이다. 「박연폭포」¹⁶⁾에서 도적의 무리를 피해 동경으로 건너 간 최성일과 이시웅이 학업을 시작하였다고 설화한 후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십여 년 성상을 고생하며 열심히 결과로”(163면) 양인이 각각 의학·신학과 문학을 졸업하였다고 서술을 재개하는 것이나,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搬移한 주인공 황수복 내외가 남학교와 여학교에서 공부한 끝에 “미국으로 간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대학교에 졸업을 각각 하고 고국으로 돌아”(227면)온다고 기술하는 「모란병」¹⁷⁾

14) 작자미상, 「금국화」 上, 보급서관 1913. 10. 1.

김용준, 「금국화」 下, 보급서관, 1914. 1. 10.(『전집』 7권에서 인용)

15) 이해조, 「봉선화」, 신구서림, 1913. 9. 20.(『전집』 3권에서 인용)

16) 이상춘, 「박연폭포」, 유일서관, 1913. 2. 7.(『전집』 7권에서 인용)

등 유학생이 등장하는 상당수의 신소설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서술이 유사하게 반복·변주된다. 동경에 도착해 여관을 찾아가는 짧은 과정에 대해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입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박연폭포』, 154~155면, 미국으로 출가하는 수복의 행위에 대해 장황한 평가적 언술을 첨가하기도 하면서(『모란병』, 226~227면), 정작 유학 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서술을 회피하면서 침묵과 생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학과 유람의 내용이 제법 구체적으로 상술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옥호기연』에서 공간좌를 짓고 복역 중 탈옥해 그 일당과 함께 이탈리아로 도주한 주막동의 행적을 살펴보면, 유람의 대상이 성 베드로 성당과 콜롯세움 등 로마 시내의 명승지로 시작하여 나폴리와 베수비오 화산, 가리발디의 생가 등으로 상세하게 나타난다. 그 각각의 장소를 대면하고 느끼는 막동의 소회와 그 장소에 얽힌 역사적 일화 등이 부가되면서 서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속된다. 살인의 누명을 쓰고 일본으로 피신하던 도중 기선이 난파되어 “남양군도 마누쓰” 해안에 떠밀려온 『능라도』의 홍춘식이 식인종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장면은 그보다 좀더 상세하고 입체적으로 긴장감을 있게 그려진다. 홍춘식과 함께 피신하여 동경에서 유학하는 이정린에 연루된 서사들 역시 여타 작품들에 비해 현저하게 다양한 사건들로 구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위의 『박연폭포』나 『모란병』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신소설에서는 유학 이전·이후에 관한 서술과는 대조적으로 유학 경험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서술을 누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술의 가속과 감속은 통상 그 서술 대상의 중핵성을 시사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즉 중요한 사건이나 대화일수록 그 부분에 대한 休止가 길어지고 자세한 서술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수의 신소설 텍스트 속에서 작중 인물의 유람이 지극히 소략한 형태로 재현되고 심지어 생략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은 유람 모티프가 전체 텍스트 내에서 점유하는 서사적 위상이 극히 부차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람과 유학의 주체가 작품의 중심에서 비켜 선 남성이라는 점과 긴밀하게 조응한다. 대부분의 신소설이 가정에서 박해받는 여성의 시련과 고난을 서사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상

17) 이해조, 『모란병』, 박문서관 1911. 4. 5.(『전집』2권에서 인용)

황에서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는 부차적 사건을 상세하게 부각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아울러 당대 시점에서는 유람과 유학이라는 행위에 관해 경험적 구체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으리라는 사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유학과 유람은 소위 선택된 계층의 특권적 전유물로서 그 이력과 여정의 구체적 내용이 전사회적으로 공유되기란 난망한 일이었고, 따라서 작가가 이를 허구적으로 재현할 만한 토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뚜렷하게 공식화된 몇 가지의 관련 사실들만으로 사건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작가의 실천적 경험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사를 구성하기 위해 생략과 요약은 서술의 방식으로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유람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화 양상

1) 당위와 願望으로서의 유람

유람이 갖는 당대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여러 신소설 텍스트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화된다. 인물의 목소리나 서술자의 직접 발화를 통해, 그리고 군중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유람과 유학은 당대인들의 시대적 열망이자 사명임을 지각할 수 있다. 『금국화』에서 명치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돌아온 이해묵을 두고 박관서는 “아마 다문박식(多聞博識)이 조선에 있는 것보다 월등히 낫겠지”(425면)라고 찬탄하며 주저 없이 사뭇감으로 낙점한다. 『홍도화』¹⁸⁾의 서술자는, 여주인공 이태희의 외숙인 김참서에 대해 “외국에 많이 다녀 개화의 선도자로 우리나라 전래하던 제반 악풍(諸般 惡風)을 일체 개혁하기로 열심 창도하는 중”(303면)이라는 설명을 부기한다. 이처럼 외국 유람 내지 유학 경험에 대해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표명하는 식의 태도는, 『봉선화』를 통해 가장 극단적으로 재현된다. 여중 추월이를 통해 시계모 구씨로부터 며느리 박성녀의 청부살해를 사주 받은 조선각은 “어려서 동경에

18) 이해주, 『홍도화』, 유일서관, 1908.(하편은 1910년에 발간. 『전집』 6권에서 인용)

건너가 유술(柔術)·격검(擊劍)을 배운 자”(249면)이다. 그는 나중에 자신에게 악행을 사주한 구씨와 추월을 향해 정의의 칼을 겨누는데, 이러한 행위는 박성녀와의 부정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박씨의 남편인 여경현은, 인명을 살상하였고 그 동기가 간음이라는 부정한 행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 조선각에 대해 결코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단죄하려 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바로 조선각이 동경 유학생 출신으로 “문명한 공기”를 접했다는 점이다. 조선각의 유학 내용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경 생활을 경험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선각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평가와 한정의 차원을 넘어 텍스트 속 인물이 직접 유람과 유학을 경험하는 과정은, 그것이 지닌 당대의 사회적 함의, 즉 시대적 당위와 원망으로서의 유람의 성격을 좀더 뚜렷이 부각시킨다. 『춘몽』¹⁹⁾의 서두에서 아내와 두 딸에게 서판서가 남기는 최후의 유언은, “저 옥선은 해외에 유학을 시켜 문명 공기를 마셔다가 조선의 우매한 여자계를 아무쪼록 발전케 하기 간절히 바라”(321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후 유언에 따라 옥선은 착실히 유학을 준비하여 동경으로 떠나고 이윽고 자신의 학업을 수행함은 물론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 민족의 공동 유산”이라 할 만한 큰 유산을 맡을 적임자인 안익상을 남편감으로 데려와 혼례를 올린다. 이러한 옥선을 시기한 나머지, 서상원과 모해하여 모친 김씨를 살해하고 안익상을 살인범으로 몰아 쫓아내는 수양딸 금전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악행의 동기는 “문명국에 유학”한 “고등부인”이 될 기회를 옥선에게 빼앗겼다는 점이다. 물론 “천성이 지극히 괴패하고 표독하”다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악행의 동기는 “비록 여자이라도 문명국에 유학을 하여 상당한 학식이 있을 것 같으면 고등부인이 되어 가히 사람된 낙을 알고 평생을 지내리라”(322면) 다짐해 왔다는 데에 있다. 자신을 키워준 모친을 비명에 죽게 하는 패륜적 범죄, 형부에게 살인의 누명을 씌우고, 조카와 언니를 꺾박함으로써 집안의 전 재산을 차지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근원에는 채워지지 못한 원망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

19) 박청농, 『춘몽』, 『매일신보』, 1914. 9. 17~23.(『전집』 4권에서 인용. 『전집』의 謄本인 박문서관 출판본은 발간 년도를 확인하지 못함.)

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사회적 염원을 이용함으로써 그것을 악행의 방략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정신병이 시켜서” 며느리 경자에게 “금수같은 마음”을 품게 된 「해안」의 황참서는 며느리에 대한 불측한 욕정을 채우기 위해 아들인 대성을 떼어 놓으려 하고, 이를 위해 동경 유학이라는 명분을 이용한다. 완고하고 어리석은 황참서이나 유학에 대한 당대의 憧憬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에게 “우물 안 고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학을 권유하고, “이왕 멀리 가서 공부할 때에는 행세나 할 만치 하고 나와야지, 유학합네 하고 근래 유학생들같이 청보에 개똥을 싸가지고 나오면 무엇에다 쓰”겠느냐며 전송하는 황참서의 발화에는 동경 유학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함의가 수용되어 있다. 전실 자식 최창길 내외를 도모하고 자신의 자식 창복으로 하여금 최씨집 가산을 전수받게 하려는 「수일룡」²⁰⁾의 한씨 부인도 이를 이용해 창길을 살해할 음모를 꾸민다. “가장 창길을 위하는 듯이” 일본 유학을 권유하는 한씨의 말에 최참봉은 당대가 “부패한 구학문은 소용 없는”(331면) 신학문의 시대입에 기꺼이 동의한다. 이처럼 동경 유학의 당위성과 명분이 견고하게 지지되는 상황에서, 조카 한성기와 동행케 하여 창길을 살해하려는 한씨의 의중은 철저히 감추어질 수밖에 없다. 평소 전실 소생 창길에 대한 한씨의 양양불락한 심사를 모르는 바 아닌 최참봉조차 의아해 하면서도 한씨의 유학 권유에 대해 “인제는 차차 지각이 나나보다”라고 이해할 만큼 동경 유학은 개화기 당대의 강렬한 사회적 원망이었던 것이다. 「몽선화」에서 계모인 구씨가 남편 여승지에게 전실 소생 여경현의 동경 유학을 강권하는 대목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에 속한다. 가권을 차지하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 며느리 “박씨의 곁쪽을 떨어버리고 범도 소리 한 마디 질러 줄 사람이 없도록”(152면) 하기 위해서라는 본심은 차후 서술자에 의해 발화될 뿐, 여승지는 구씨의 권유를 “진정으로 집을 위하여 장원(長遠)한 계교”라고 간주한다.

이상의 사례들과는 달리 유람이 텍스트 말미에서 돌출적으로 행해져 전체 서사와의 연계가 다소 느슨해진 경우도 있다. 「광약산」²¹⁾의 강을형은 애매한

20) 작자미상, 「수일룡」, 동아서관, 1916. 1. 15.(『전집』10권에서 인용)

누명을 쓰고 쫓겨난 처 목태희의 유서를 발견하고 비참한 회포에 사로잡혀 “불상한 소저의 신체나 차저못”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의 끝에 “세상 구경”이 부기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결국 정치없는 방향은, “넋친 거름에 강산풍월 구경”이 되고 여정은 금강산·관동팔경·평양성·연광정·대동강으로 이어지기에 이른다. 이는 『안의성』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출분당해 결국 실성하기에 이른 여동생 박정애의 행방을 좇는 박춘식이 “(정애의)죽은 얼굴이나마 한번 만나보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니, 화중난 김에 명산(名山) 구경삼아 사면팔방 유산객(遊山客) 노릇이나 하여보리라”고 다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어찌 보면 평지돌출 격으로 혹은 극히 충동적으로 제시된 듯해서 전체 서사와의 유기성을 상징하기가 어려운 이런 식의 유람은, 유람에 대한 당대인들의 동경이 어느 정도로 강렬했는가를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일견 유기성을 결여한 채 단순 삽입된 듯하지만, 유람에 나서는 인물들이 죽음을 전제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선택한 유람은 그만큼 강렬한 내적 동기에 근거한 것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위 죽음을 앞 둔 사람의 마지막 소원에 준하는 것으로서 선택된 유람이라면, 이에 대한 동경과 원망의 정도를 추론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2) 탈출과 도피로서의 유람

신소설 텍스트 내에서 작중 인물이 수행하는 유람의 의미를 범주화하는 또 다른 갈래는 그것이 탈출과 도피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경우이다. 당위와 원망으로서의 유람이 유람을 독려하는 사회적 추구와 합의를 근거로 선택되는 반면, 탈출과 도피로서의 유람은 작중 인물이 처한 극적인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요컨대 유람이 문면에 서사화되기 이전에 이미 인물 간에 극심하게 고조된 갈등 양상이 구체적 사건 전개를 통해 제시되고, 이러한 갈등 관계의 전환 내지 돌파구로서 유람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탈출과 도피의 의미를 갖는 유람은 그것이 핵심 갈등의 직접적 당사자에

21) 박건병, 『광악산』, 박문서관, 1912. 7. 30.(본고에서는 계명문화사본 『신소설전집』 3권에서 인용하였으며 이후 면수만 기재하기로 함.)

의해 행위화되는 유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구의산」²²⁾(오복 노주의 유람), 「추월색」, 「박연폭포」, 「능라도」²³⁾ 「원양도」²⁴⁾ 등은 생명의 위협을 직접 체감한 당사자들에 의해 유람이 선택된다는 점에서 전자의 사례에 해당한다.

「구의산」에서 계모 이동집의 모해로 신혼 첫날 밤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오복은, 이동집의 사주를 받은 칠성의 정의감 덕에 극적으로 목숨을 구한다. 오복과 칠성 노주가 인천 제물포에서 화륜선을 타고 “구명도생”의 유람길에 오르기까지, 오복의 부친인 서판서와 이동집의 혼인 및 이동집의 오복에 대한 뿌리 깊은 앙심, 오복의 장성과 혼인, 범죄를 사주하기 위해 칠성을 회유·접박하는 이동집에 관련한 사건들은 점점 갈등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교직되어 나간다. 하지만 오복 노주의 탈출은 전체 서사에 있어 감추어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고, 텍스트 말미에 완성되는 가족의 재회를 가능케 하는 핵심적 사건이 된다.

「박연폭포」에서 도적의 무리를 피해 “폐신차로” 일본행에 오르는 최성일과 이시웅의 경우, 「능라도」에서 살인의 누명을 쓰고 역시 “폐신”을 위해 일본행을 선택하는 이정린과 홍춘식의 예, 「원양도」에서 정부 대관의 교의가 번복될 줄 짐작하고 무죄백방된 조판서와 포아로 “도망”하는 말불 내외의 경우 등은 「구의산」의 사례와 동례를 이룬다. 부득불 폐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정황을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 제시하고, 서사적 흐름의 국면 전환을 위해 유람이 선택되는 경우들인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유람 행위는 갈등 주체와 조력자를 포함한 2인 이상에 의해 수행된다는 특성을 공유한다.²⁵⁾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둘 때 특이한 양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추월색」의 사례이다. 정혼을 파기하려는 부모에게 맞서 倫綱의 고수를 내세우며 동경으

22) 이해조, 「구의산」, 신구서림, 1912. 7. 20. (‘신안생’이라는 필명으로 『매일신보』에 1911년 6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연재(『전집』 2권에서 인용))

23) 최찬식, 「능라도」, 조선서적, 1918. 7. 5. (『전집』 5권에서 인용)

24) 이해조, 「원양도」, 중앙서관, 1909.

25) 「능라도」의 이정린과 홍춘식의 경우 양자 모두 살인범으로 지목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결과 도피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에 전개된 서사를 통해 이미 홍춘식이 이정린의 목숨을 구하는 조력자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관계 역시 원조자와 수혜자로 상정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

로 피신하는 정입의 사례는 조력자의 원조가 전혀 없이 도피로서의 유람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혼의 파기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과 등가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고, 일본행 이전까지의 갈등 관계가 여타 작품들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범주화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집을 나서기에 앞서 정입이 부모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부모의 뜻에 따라 정혼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금수에 가까운 일”로 규정하면서 “죽사와도” 이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정조와 생명이 등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정질이 옥같은” 정입은 목숨과도 같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 승야하여 동경으로 피신한다. 유람의 선택이 주체적 고민에 의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변의 도움도 없이 동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입의 도피는 여타 텍스트의 사례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의산」(서판서의 유람), 「금국화」, 「추천명월」,²⁶⁾ 「금강문」, 「해안」 등에 나타난 유람은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처한 현실에 회의를 느껴 심리적 도피를 선택한 인물들에 의해 행위화된다. 극심한 갈등 혹은 파국을 맞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겪게 되는 정신적 고뇌는 작중 인물을 자신이 처한 현실에 안주할 수 없게 하고, 결국은 집을 떠나 지향 없는 유람길에 오르게 한다. 그래서 대개 이러한 유형의 유람들은 행위자 개인에 의해 뚜렷한 여정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서사화되는 특성을 공유한다.

「구의산」에서 칠성과 오복의 경우와는 달리, 서판서의 유람은 가정 내에서 빚어진 참혹한 비극이 사법적 심판에 의해 어느 정도 귀정지어진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서판서는 장자 오복의 끔찍한 죽음이 후처의 사주로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고, 더욱이 요악한 후처가 “체 독에 겨워서” 기출인 次子 또복마저 돌로 쳐 죽게 하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자, 결국 이동집이 감옥에 뇌수되고 아들의 시체를 안장하는 등 상황이 정리된 후, “자기 집을 하직하고 죽장망혜로 정치와 방향 없이 길을 떠”난다. 더 이상 삶의 정주처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잠시도 있을 마음이 없게” 만드는 집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지위를 박탈하게 만드는 가정이 유람의 직접적 동기를 형성하고 있는

26) 작자미상, 「추천명월」, 신구서림, 1914. 1. 15.(『전집』 10권에서 인용)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뿌리뽑힌 가정이 失地를 회복하고 그 본원의 위상을 복구하는 시점이야말로 작중 인물의 유람이 종료되고 귀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일 것이다.

「추천명월」에서 김진보가 취하는 유람의 행적 역시 이러한 시점의 정확한 일치를 보여준다. 후실 이씨가 전실 부인의 충비인 김순에 대해 포악한 마음을 품고 이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자, 김진보는 재혼을 후회하면서 “집안에서 속상할 것 없이 신소설 <검중화(劍中花)>의 이담용의 본을 떠서 명산승지를 구경이나 하리라”(363면) 작정하고 역시 죽장망해로 길을 나선다. 하지만 “조선 땅을 두루 유람”하고 “일본까지라도 구경을 하”기로 계획된 이 유람은 강릉 경포대에 이르러 종결되고 만다. 이씨의 사주를 받은 장별감이 그와 유람 중에 재혼한 평양 기생 송련의 목숨을 빼앗으려다 도리어 포수 영산에게 충상을 입어 모략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씨 부인의 “전일 악습”이 모두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잘못을 회개한 이씨가 “별안간 마음이 변하여 현숙한 부인이 되”는 “희한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파란과 곡절로 흔들리던 가정은 유람에서 돌아온 구성원들의 회귀와 더불어 그 공고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금강문」의 이정진이 정혼자 김경원과의 혼사가 무산되자 울적한 심사에 영국행을 선택하는 것이나, 「해안」의 황대성이 모친으로부터 아내 경자에 대한 부정한 무고를 듣고 “세상만사가 모두 귀치 아니하여 세계 만국 구경이나 하리라 하고 즉시 횡빈으로 나가 미국으로 가는 화륜선(火輪船)에 오르”는 것, 「금국화」의 이해묵이 자신을 죽이려던 계모 죄씨가 죄상이 밝혀져 투옥된 후 “한낱 도덕의 죄인”이라 자처하면서 죄씨가 석방될 삼 년 후에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유람길에 오르는 것 등은 위의 사례들과 동질적인 유람의 행태라 할 것이다. 작중 인물들에게는 자신이 밭 딛고 선 사회의 최소 단위이자 핵심적 요소를 이루는 가정에 “마음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한 상황을 통제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인물들, 특히 남성 인물들은 스스로 여성들이 전유한 공간인 가정으로부터 이탈하기에 이른 것이다.

4. 유람 모티프의 사회적 맥락

1) 세계의 유람과 유람의 세계화

신소설이 지닌 새로움의 근간은 흔히 서구적인 것으로 대변되어 왔으며,²⁷⁾ 이는 사회 여러 각 분야를 망라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제인 것이 사실이다.²⁸⁾ 유람이 신소설 텍스트들 속에 두드러지게 서사화되는 경향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아서, 18세기 이후 왕성하게 이루어진 서구인들의 전지구적 유람과 그 기록물들의 유행에 대한 문학적 반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왜 특히 개화기 당대에 이르러 유람 사건이 허구 텍스트 속에 그토록 빈번하게 등장하고, 왜 앞서 살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의미화하는가를 해명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담론적 양상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근대 유럽중심주의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는 철저히 서구 유럽인의 시각으로 탐색된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 인식이다.²⁹⁾ 19세기 중반 이후 식민지 확보 경쟁 속에서 노골화한 서구의 제국주의적 책략 역시 바로 이러한 탐색과 세계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 무역로의 발견이었든지, 식민지에 대한 감시와 자원 전유·행정적 통제에 있었든지, 아니면 감상적 이국 취향을 자극하는 데에 있었든지 간에, 輿地로 통칭된 비서구 세계에 대한 여행과 탐험은 근대 서구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러한 행위의 기록물들 역시 열광적인 독자 대중을 거느리기에 충분했다.

철도와 증기선, 전신으로 대표되는 근대 기계 문명의 소산들이 이러한 서구의 세계 인식, 즉 세계 유람을 향한 동경과 열망을 가능케 한 현실적 조건

27) 일찍이 임화가 “신문학사는 근대 서구적인 의미의 문학의 역사다”(임규찬 외 편, 앞의 책, 17면)라고 단언한 이래, 이러한 시각은 후대 연구자들의 논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28) 한국의 근대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가족, 성, 소비, 미술, 음악, 법률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검토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전통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 사이의 충돌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일훈 외, 『전통과 서구의 충돌』, 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2001.

29)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Routledge, 1992, 15면. 프랫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 인식 형성을 가능케 한 세계 탐험이 박물학과 지구과학 등의 학문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상술하고 있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적 利器를 통한 서구인의 세계 유람이 확산·보편화하면서 이들과 조우하는 비서구인들 역시 단순한 문물의 수용을 넘어 근대 서구 의식과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한다. 압도적으로 선진화된 서구 기계 문명의 강한 흡인력은 그 물리적 산물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산을 배태케 한 의식적 근간에도 유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개화기 조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외국 풍속과 명산 대천의 화려함을 보지 못하면 우물 속에 처함과 꺾지 문건이 고루하고 해두가 막힐지라 그런 고로 외국의 천왕들과 황조 왕도 각국에 유람하기를 당연한 일노 알고 학문 있는 선비들과 지혜 있는 명인들은 외국 풍토를 구경치 아닌 이가 하나도 업는지라……(중략) 그런즉 세상에 뜻 있는 선비는 불가불 외국에 유람하여 회포를 덜어내고 안목을 시원하게 할 것이오…… 외국 문정과 정치와 풍토를 열람하여 남의 나라의 조흔 법을 내 나라로 옮겨 오는 것이 문명하고 부강하기에 제일 긴요한 묘술이라……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대한 학원들은 조흔 학문과 남의 풍토를 자세히 열람하여 텃하 각국의 있는 조흔 법은 일제히 대한으로 옮겨다가 침작하여 쓰고 보면 나라가 절로 부강할 것이오……³⁰⁾

세계 유람을 통한 문건의 확장을 개화기 지식인의 지상과제로 규정하고 있는 위의 논설은, 당대에 『독립신문』이 갖는 여론 주도적 위상을 감안할 때 유람에 대한 당대인의 열망과 동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짐작케 한다. 논자는 사마천을 예로 들어, 그가 “방년 二十에” 남북으로 “유람”한 후 돌아와 “중원 텃디에 문장이 되었”다고 하여, 유람이 곧 그의 사상과 저술에 토대가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유람 행위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소통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기의를 갖고 있어서, 각국의 풍속과 유명한 산천의 풍경을 두루 살피며 구경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그 행위가 갖는 당대의 사회적 의미를 투사하고 있다. 즉 유람이란 “나라가 절로 부강할” 방책을 찾는 사명을 띠고 있으며, 선진 외국의 “조흔 법을 내 나라로 옮겨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람에 부여하는 당대 사회의 기대와 가치를 확인케 하는 언급들은 『독립

30) 「각국 유람」, 『독립신문』 논설 1899. 6. 30.

신문』 논설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외국에 다녀와 외국인들과 왕래하는 개화 인사들을 “철 끌고 지각 업는 사뭇들”로 치부하며, 우리나라와 청국이 “아모리 죽게 되었다 후되 설마 서양국의게 망홀 리가 만무흔 즉 필경은 그 나라들이 동양에 쏘적 못홀 운슈가 잇슬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밧게는 나가지 못히고 몇 십년을 방안에서문 자라 낫슴익” “그 방문 밧기 세상이 넓고 경치 조흔 줄은 평상에 보도 듯도 못흔” 불쌍한 존재로 비판받는다.³¹⁾ “세계가 혼 집안”이 되도록 기여한 공업, 즉 “뿔선과 털도와 전선과 우테”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³²⁾ 나아가 이러한 요소들이야말로 서양의 문명하고 부강한 나라들을 가능케 한 “크게 리익되는 요건”이라는 주장³³⁾ 등은, 전대 사회의 한계와 굴레를 초월한 확장된 문명에 대한 열망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담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담론과 소통하면서 당대의 인식 일반의 틀을 공유했던 신소설 텍스트들에서 유람이 당위와 원망으로 의미화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아무리 악인을 향해 칼끝을 겨누었다고 하나 잔혹한 살인을 자행한 인물을 두고, 그가 일본에 다녀와 “문명한 공기를 마신” 사람이기에 그 행동을 정당화할 여지를 허용하는 내포작가의 태도는 유람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지향을 단적으로 예시한다. 하지만 이처럼 다소 맹목적인 정도의 기대와 원망을 부여하면서도 실제 텍스트 내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 서술은 생략과 요약을 반복하면서 극히 추상적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유람이 일부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해지던 현실을 고려하여 본다면, 유람하는 인물이 소설에 자연스럽게 형상화되기에는 아직 때가 일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향한 유람과 유학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당대의 과제였으며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시대적 사명이었다.³⁴⁾ 이를 통해서만

31) 「방안만 아는 말」, 『독립신문』 논설, 1899. 5. 5.

32) 「문설」, 『독립신문』 논설, 1899. 4. 4.

33) 「다섯 가지 큰 리익」, 『독립신문』 논설, 1899. 9. 13.

34) “人生 斯世하여 好箇學問을 求호고져 홀진디 不可不 外國에 遊覽홀 거시오 遊覽호더라도 文字면 學홀 뿐이 아니라 高名흔 親舊를 屢屢相從하여 學識을 求홀 거시로다”(『美國留學生 朴處休氏 寄書(續)』, 『대한매일신보』 잡보, 1905. 12. 24), “한국으로 의론홀지라도 이왕 시대에 세계의 영웅 조격을 꺾춘은 인물이 었지 업스리오마는 당시에 그 공렬과 덕망이 겨우 지나와 일본에까지 미쳐 갈 뿐이오 태평양을 건너서 구미 각국의 이목을 놀나게 못호였스나 오늘날에 니르러는 각각 조국의 능력디로 세계를 좌지우지홀 만흔 시대라…… 오늘날

서구의 괄목할 문명적 결과를 하루속히 학습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학과 유람에 관한 강렬한 사회적 열망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의 실질적 형식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비판과 성찰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외국 풍속과 경계를 두루 살펴 ‘보는’ 행위 자체가 지닌 가치의 威儀에 놀려 그러한 행위의 구체적 방안과 결과 및 한계, 그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적용·환원하는 실천적 사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의 여지를 마련하지 못했다. “신공기를 마시”는 행위가 어떻게 “세계의 영웅 즈격을 꺾은 인물”을 만들고, 외국의 “조흔 법을 내 나라로 옮겨 오”는 데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언급은 당대 유람 관련 담론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요컨대 압도적인 사회적 지지의 대상이었던 유람과 유학은 그에 상응할 만한 현실적 지지 대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공허한 기표로서 과잉 力說되었던 것이다.³⁵⁾

2) 자아의 부정과 타자의 이상화

유람이 사회적 당위와 원망의 대상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은 서구, 즉 바깥을 향한 강한 열망을 전제한다. 그런데 이러한 열망의 정도가 증가하는 데 비례하여 국내 즉 안을 향한 부정과 비판도 증대하기 시작한다. ‘안’과 ‘밖’의 경계는 곧 악/선, 미개(야만)/개화(문명)의 이분법적 도식으로 확장되어 당대의 현실 담론은 물론 신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허구적 텍스트 속에서 다양하게 변주된다.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조건에 대한 강한 부정은 더 나은 타자에 대한 맹목적 동경과 이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세계 유람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

국가는 문을 닫고 약도를 끈호며 니불 밋히서 잘난 테홀 제가 아니오 반드시 세계와 교섭하고 세계와 분쟁하여 세계 중에서 독립함을 잇을지라”(『영웅과 세계 속』, 『대한매일신보』 논설, 1907. 1. 7), “우리 량군 졸업하니 모학교에 우등이라 신공기를 마시랴고 구미럴 국 유람하니 도흔 비단 혼필 짜서 새옷 지어 보닛갬네 이 시더가 어는 제노”(『시 스펙론』, 『대한매일신보』, 1908. 7. 1) 등의 언급은 이를 뒷받침한다.

35)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새롭게 부상한 용어가 구체적인 현실의 대상 및 이를 지시하는 용례의 부재로 그 의미가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남용되는 양상에 관해 필자는 『신소설에 나타난 신생 개념으로서의 ‘사회’와 가족주의의 견고성』(『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집, 2005)에서도 상론한 바 있다.

지만, 그 실상의 차원에서 서구와 비서구 세계가 갖는 지향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18세기 이후 싹트기 시작해 19세기에 만개한 서구 탐험가들의 민족지적 서술은 서구인들에게 비서구 지역을 특정한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하였다.³⁶⁾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이미지들은 서구인들이 비서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갖는 차별화된 관념들을 형성함으로써 근대의 유럽중심주의를 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³⁷⁾ 이처럼 서구인들의 유람이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자아의 주체성을 보다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반면, 개화기 당대 조선인들의 유람은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자아를 더욱 더 타자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구체적인 삶의 조건과 상황으로부터 기인했을 서구와 비서구인 간의 이러한 차이는 결국 유람에 열광하는 동일한 표면적 현상이 행위 주체의 인식 체계 및 존재적 위상에 있어 극단적인 격차를 감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립신문』에 게재된 상당수의 논설은 이러한 양상을 뒷받침한다. 서양의 문명이 진보한 까닭을 “서양 사립은 부즈런 하야” “아지 못 흥는 일이 잇스면 슈빅년이 지나도 쓰치지 아니 하고 리치를 궁구히 생각 흥”기 때문에 “지식이 열려서”그러하다고 보고, “아세아 사립은 한서 두 글즈에 깃히 병이 들어” “서양 글을 야만의 글이라 하야 넘지도 아니 흥고 썩은 나라 글뎀 넘어 넷적에 흥던 일뎀 흥니 무슴 지식이 나리오”라고 비판하거나,³⁸⁾ 번듯한 외양을 하고서 병신 흉내를 내어 외국인에게 구걸하는 선비를 예시하며 이를 대한제국의 상황과 병치시켜 “타국 사립의게 슈치를 면 흥면 조켓”다고 한탄하는 경우,³⁹⁾ 서양인들이 바빠 걸어다니는 모습을 형용하면서 이러한 부지런함과 대조적으로 “대한은 놀고 편이 지닌는 것이 고질이 되”었다고 비난하는⁴⁰⁾ 등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서구에 대한 과도하고 다소 무분별한 미화는 심지어 비서구 세계를 타자화하는 그들의 시각을 여과 없이 답습하는 자기당착에까지 이르기에도 한다. 동서양 각국에 등수를 부여하면서 문명국 -

36) 조현범, 『문명과 야만』, 책세상 2002, 43 면

37) Pratt, 앞의 책, 5면

38) 「유지각흥 친구의 글」, 『독립신문』 논설, 1898. 9. 19.

39) 「표리부동」, 『독립신문』 논설, 1899. 7. 14.

40) 「시간은 돈」, 『독립신문』 논설, 1899. 7. 3.

개화국-반개화국-야만국으로 범주화하거나,⁴¹⁾ 대한민민이 황인종이며 대한 제국이 개화에 유의하는 나라인 점을 들어 상등 지위에 참여할 만하다고 강변하는 식의 논리,⁴²⁾ 영국과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식민화의 책임이 제국주의 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식민지인들의 과오에 있음을 강조하는 태도⁴³⁾ 등은 이를 예증한다.

물론 이러한 현실 담론의 논조는 20세기 이후 일본의 식민화 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동양에 황인종의 압력으로 나아갈 움짝이며 안으로 정치와 법률을 바르게 할 거울”⁴⁴⁾로서 서구 문명 수용의 선진적 모범을 보인 “형태” 국가 일본은, 고래처럼 조선을 삼키고도 족함을 모르는 호랑이⁴⁵⁾로 묘사된다. 미국과 유럽 열강의 자원 침탈이 가속화하면서 이를 도리어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탄식 섞인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⁴⁶⁾ 더욱이 1907년 일본에서 열린 동경 권업박람회에서 인종전시관이 설치되고 여기에 조선인 남녀가 구경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게 된다.⁴⁷⁾ 이 사건은 서구와 일본을 비롯한 소위 문명국가를 향한 조선의 구애가 얼마나 일방적인 것이었으며, 양자 간 인식의 낙차가 얼마나 격심한 것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반증한다. 하지만 이러한 각성이 ‘안(內)’, 즉 국내 현실에 대한 부정과 비판, 나아가 자학적이기까지 한 인식마저 일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록 서구에 대한 맹목적 이상화를 경계하고 일본의 식민화 야욕에 뚜렷한 경고를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내부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지기에는 당대의 사회적 상황이 녹록치 못했다.⁴⁸⁾ 결국

41) 「나라 등수」, 『독립신문』 논설 1899. 2. 23.

42) 「인종과 나라의 분별」, 『독립신문』 논설 1899. 9. 11.(……흑인종과 적인종은 인류가 아닌 것은 아니로되 족히 의문할 것이 업고 야만국과 미개화국은 나라이 아닌 것은 아니로되 또한 족히 말할 것이 업거니와 지어 대한 인민 호야는 동양에 황인종이 되었스니 인종도 쓸만 조흔 뿐더러 괴위 기화에 크게 유의호야 법률과 장명을 일선케 경장한 터인 즉 아모조록 시종이 여일케 호야 동서양에 한번 상등국이 되는 것이 었더 호오.)

43) 「론설」, 『독립신문』 논설, 1899. 10. 20.

44) 「론설」, 『독립신문』 논설, 1899. 11. 9.

45) 「遠東報의 時評」, 『대한매일신보』 별보, 1906. 7. 15.

46) 「한국광산」, 『대한매일신보』 논설, 1908. 11. 25.

47) 전시된 인물의 성명 등에 오차가 있기는 하지만, 1907년 6월 19일자 『대한매일신보』 기사와 당시에 관한 황현의 기록(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 엽서』, 민음사, 2005, 132면)을 교차적으로 참조해 보면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안’은 탈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암흑시대”⁴⁸⁾였던 것이다.

신소설 텍스트 속에서 유람이 도피와 탈출로서 의미화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양상과 연계된다. 작중 인물의 느닷없는 유람이 서사화되는 것은 그가 처한 집안의 상황이 탈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격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난관을 타개할 적극적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대신 인물은 현실의 탈출구로서 유람을 손쉽게 선택한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이 아내의 출분이라는 파국을 부르고, 재혼을 종용하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유람을 선택한 『안의 성』의 김상현은 이를 예증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세계를 주유하는 그의 행적에 관한 서술은, 서구인에 대한 비서구인의 무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랜 기간의 유람으로 赤手空拳이 된 상현은, “하릴없이 유명한 정치가·재산가 등을 찾아다니며 자기의 세계 주유의 취지를 설명”하고 “간 곳마다 지극히 환영하며 영준한 재화를 찬양하여 다수한 기부금(寄附金)을 보조”(『안의 성』, 139면)받게 된다. 조선의 두 남녀를 인종전시관의 구경거리로 삼는 실정에서 볼 때 김상현의 행적이 개연성을 갖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내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외부에 대한 맹목적 동경이 상승작용을 반복하면서 유람은 탈출과 도피의 손쉬운 수단으로 선택되고, 나아가 지나친 ‘타자 선택’과 ‘자기 부정’이 서구로 대변되는 외부/타자에 대해 터무니없는 미화와 이상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한매일신보』의 논조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현실 담론에서는 서구와 일본에 대한 맹목적 이상화의 미망이 걷히면서 그들의 식민화 책략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 신소설 텍스트 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즉 열강의 식민화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신소설 작가들의 의식은 여전히 개화 초기 『독립신문』에 담지된 선진 문물 수용이라는

48) 개화기에 소통된 담론들의 타자 인식과 자학적 현실 인식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필자가 『신소설의 범퍼서사 연구』(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03)의 4장 3절 1항에서 상론한 바 있다.

49) (한국 내 인민들은)“飽食暖衣에 문 힘쁘고 見識發達은 何件物事인지 不知”라고 개탄하고, “學校도 設立하지 안코 新聞도 넘지 안흐며 子弟의 入學도 不許하니 三千里 疆土? 暗黑時代”라고 하였다.(『讀共立新報有感』, 『대한매일신보』 잡보, 1905. 12. 22)

소박한 인식의 차원에 머무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현실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문학과 현실 담론 사이의 본질적 상거에서 기인한 것인지, 기왕의 문학사 서술 속에서 익히 비판받고 있듯이 신소설 작가들의 물역사적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정치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결론

유람이라는 단서를 시발점으로 삼아 개화기 당대에 발화·유통된 신소설이 하나의 담론으로서 갖게 되는 근대적 속성의 구체적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본고는 우선 유람 사건이 문면에 제시된 다양한 신소설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삼아 그 서술의 양상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는 소설의 화자가 사건을 말하는 방식, 인물과 사건을 초점화하는 방식에 관계된 것으로서, 일련의 유람 사건 즉 유람 모티프가 텍스트 내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과연 유람이란 전체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하는 다음의 작업을 위한 일차적 토대가 되었다.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바, 이러한 텍스트 내적인 유람의 의미가 당대 사회에서 발화·소통된 맥락을 살피기 위해 신소설 텍스트와 더불어 당대의 신문 게재 논설과 기사 등을 병행하여 검토하였다.

한 편의 문학 텍스트는 저자의 사유와 경험, 상상력과 무의식 및 저자를 둘러싼 역사적·사회적 규정들의 표현⁵⁰⁾이기에, 그 텍스트가 하나의 담론으로서 발화된 상황과 맥락을 살피는 과정은 해석의 필수적인 전제이다. 일견 생경하게 돌출된 듯한 작중인물의 유람 행위는, 신소설과 인식의 저변을 공유하는 당대의 현실 담론들과 병치됨으로써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될 가능성을 열게 된다. 가령 “외국 풍속과 명산 대천의 화려함을 보지 못하면 우물 속에 처함과 같이 문견이 고루하고 해두가 막힐” 것이라는 『독립신문』의 논설, “人生斯世하여 好箇學問을 求하고자 할진대 不可不 外國에 遊覽할” 것이라고 호소하는 『대한매일신보』의 쯤글 등은 개화와 문명화라는 당대 사회의 지

50) Foucault,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역, 민음사, 1992, 48면

상 과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도로서 유람을 강박적으로 부르짖는다. 비록 텍스트 내에서 유기적으로 형상화되지는 못했을지라도, 신소설의 유람 사건들이 단지 몇몇 작가들에 의해 총동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삽입이 아니라, 이와 같은 당대의 시대적 당위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배태한 필연적 산물이라면, 유람 모티프는 신소설이 담지한 근대적 담론으로서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임에 분명하다 하겠다.

▮ 주제어 : 신소설, 유람, 모티프, 담론, 근대성, 서술, 요약, 타자의 이상화, 타자로서의 서구, 담론의 맥락

< 참 고 문 헌 >

1. 기본 자료

『대한매일신보』, 1904~1910.
 『독립신문』, 1986~1989.
 『신소설·번안(역)소설』, 아세아문화사, 1978.
 『신소설전집』, 계명문화사, 1987.
 『한국신소설전집』, 을유문화사, 1968.

2. 논저

권혁희,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우미영, 「視角場의 변화와 근대적 심상 공간」, 『어문연구』 12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이일훈 외, 『전통과 서구의 충돌』, 역사문제연구소 편, 역사비평사, 2001.
 임규찬 외 편, 『신문학사』, 한길사, 1993.
 조현범, 『문명과 야만』, 책세상, 2002.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03.
 최현주, 「신소설에 나타난 신생 개념으로서의 '사회'와 가족주의의 견고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12.
 Foucault,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역, 민음사 1992.

Pratt, *Imperial Eyes :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Routledge, 1992.

Rimmon-Kenan, 『소설의 시학』, 최상규 역, 문학과지성사, 1985.

Tomachevski, 「테마론」, 김치수 역, 『러시아형식주의』, Todorov 편, 이대 출판부, 1981.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ity of Discourse in Sinsoseol — Focused on the ‘Travel’ Motif —

Choi, Hyunju

This essay was projected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what is in the concrete the modern property of Sinsoseol as a discourse spoken and circulated in modern period. A travel motif was a kernel clue for beginning the project. Sinsoseol(new novel) is the modern literature characterized by the newness differed from a prior generation. It is just a main issue of the argument for examining the modernity of Sinsoseol that make clear the true characters of the newness. An extemporary and impulsive travel is distinctively repeated in Sinsoseol, the product of the modern period that is characterized by an absolute eagerness for the western new-civilization and a radical social transformation. This event was a visible index making Sinsoseol text differentiate from classic novels, because it was not apt to be discovered in them. The travel motif would be probably founded on the life condition making possible the intention and practice of the world travel and the absolute anxiety for seeing more of life those were difficult to be connected with the themes of prior novels. The travel motif in Sinsoseol was not only an episode unconsciously inserted by a few authors, but an inevitable result produced in the course of conforming to a rightness at that time. Therefore it was no doubt that the travel motif was a very important clue for grasping the true nature of Sinsoseol as a modern discourse.

This essay was constructed by three chapters. First of all, in chapter 2, I drew out various Sinsoseol texts included travel events and closely

analyzed the aspects of narrating them. In chapter 3, I focused on what was a function or a role that a series of travel events, the travel motif, charged in texts, and what was the meaning that the travel really possessed. Chapter 4 was composed in the way of investigating the articles on newspapers at that time together with Sinsoseol texts. This method might be effective on showing us the context in that the significance of travel in text was spoken and circulated in that period. The examination connected Sinsoseol text with context at that time, would be necessary for solving the following interrogations: What is the meaning the action of travel in the period of being produced Sinsoseol has? What is the reason so frequently the travel motif is included in texts? Why is the travel motif constructed by all means in the way of being presented in Sinsoseol text?

Key words : Sinsoseol, travel, motif, discourse, modernity, narration, summary, idealization of the others, the Occident as the others, the context of discourse

최현주

전 서울여대 강사

전남 목포시 신흥동 신안꿈동산아파트 106동 1002호

전자우편 : anytext@hanmail.net
